

KWDI 이슈페이퍼

수행과제명 폭력예방교육의 효과성 증진방안 연구: 남성참여자를 중심으로
과제책임자 이미정 선임연구위원 (Tel: 02-3156-7154 / E-mail: mjnglee@kwidimail.re.kr)

남성 참여자의 폭력예방교육 효과성 증진 방안

초록

- 폭력예방교육이 급속히 확대되었지만, 남성에 초점을 맞춘 예방교육 기획에 대한 노력은 부족한 편임. 폭력예방교육 현장에서 강사들은 남성 수강자의 부정적 태도를 경험하지만, 교육에 대한 남성의 인식, 수용도, 효과성 연구는 거의 없어 본 연구에서는 폭력예방교육에 대한 남성의 인식과 수용도를 점검하고 효과성 제고 방안을 모색하고자 하였음.
- 자료 수집을 위해서 공공기관 종사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교육 참여 경험이 있는 남성과 폭력예방교육 강사 등 전문가 대상으로 심층면접을 진행하였음. 조사 결과 폭력예방교육이 남성의 성별 고정관념과 젠더폭력에 대한 고정관념을 깨는 데 도움이 되었는데, 효과성 제고를 위해 소수가 참여하는 토론회 형태의 교육을 원하는 것으로 나타났음. 또한 폭력예방교육 및 젠더폭력에 대한 성별·연령별 인식 차이가 확인되었는데, 40대와 50대보다 20대와 30대에서 성별 인식의 격차가 컸음.
- 이러한 차이를 반영하여 교육 콘텐츠를 구성하는 것이 중요하며, 개선방안으로 폭력예방교육을 실시하는 각 공공기관의 자원투입과 역량 제고, 이에 대한 정책지원을 제시함. 또한 젠더폭력 방지를 위한 남성의 역할 제고 방안으로 주변인 프로그램 확산, 성평등 사회 구현에 있어 남성 참여 확대, 남성 수강자 공감도 제고를 제안함.

1. 배경 및 문제점

- ▶ 폭력예방교육이 확대되었지만, 남성 인식변화에 대한 초점을 맞춘 교육을 기획하는 노력이 부족함. 폭력예방교육에 참여하는 남성들의 부정적 태도가 보고되지만, 이와 관련된 심층적 자료나 연구가 거의 없음.
- ▶ 남성을 대상으로 폭력예방교육의 효과성을 높이는 것이 중요한 과제로 등장함.
- ▶ 본 연구에서는 폭력예방교육과 관련된 남성의 교육 참여에 대한 경험, 인식, 평가에 대한 현황을 파악하려고 함. 남성교육 참여자와 폭력예방교육 강사 등 전문가 대상 심층면접과 공공기관 종사자 대상 실태조사를 통해 수집한 자료를 분석함. 이를 통해 남성대상 폭력예방교육의 문제점을 확인하고 개선방안을 제시하려고 함.

2. 조사 및 분석결과



조사방법

1. 전국 공공기관 폭력예방교육 이수자 실태조사

- 대상: 2019년 폭력예방교육을 실시한 전국 공공기관 근로자(총 2000명)
- 모집방법: 여성가족부 협조를 통해서 얻은 전국 공공기관 리스트 활용
- 조사방법: 온라인 조사
- 조사내용: 폭력예방교육 방식, 폭력예방교육 효과, 폭력예방교육에 대한 인식

2. 심층인터뷰 조사

1) 남성 수강자 심층 면접

- 대학·대학원 및 공공기관의 폭력예방교육에 참여한 남성 수강자(총 17명)
- 모집방법: 눈덩이 표집
- 조사방법: 집단면담, 개별면담, 전화면담
- 조사기간: 2020년 6월 3일 ~ 2020년 9월 3일
- 폭력예방교육의 방식, 내용, 성폭력에 대한 인식, 남성성에 대한 의견, 젠더폭력 문제 해결방안, 폭력예방교육 개선방안

2) 전문가 심층면접

- 폭력예방교육강사와 전문가(총 10명)
- 모집방법: 눈덩이표집
- 조사방법: 집단면담, 개별면담, 전화면담
- 조사기간: 2020년 6월 3일 ~ 2020년 10월 13일
- 조사내용: 수강자의 성별, 연령, 직급별, 직장별 차이, 수강자의 태도와 폭력예방교육 진행의 어려움, 남성은 '잠재적 가해자'라는 표현에 대한 의견과 수강자의 불만, 성별 분리 교육에 대한 의견, 교육의 수용도와 효과성 제고 방안 및 조치



남성의 폭력예방교육 경험과 관련 인식

- ▶ 남성 수강자들은 폭력예방교육이 성별 고정관념을 깨고 성적 자기결정권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응답하였음. 온라인 교육보다는 대면 교육을 선호함.
- ▶ 심층면접에 참여한 남성들은 온라인 단톡방 성희롱에 불편함을 느끼지만 침묵하는 경향이 있음.
- ▶ 사회가 요구하는 남성성에 부담감을 느끼고 전통적 남성성의 변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함.
- ▶ 남성수강자들은 젠더폭력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남성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것에 동의지만 현실적 참여 가능성에 대해서는 의문을 가지고 있음.
- ▶ 기관 특성에 대한 이해도가 높은 폭력예방교육 강사와 소규모 토론회 교육을 원하고 있음.



폭력예방교육 관련 실태조사

<표 1> 예방교육에 대한 평가

(단위: %)

구분		대면 집체강의 효과성	교육내용 기관에 맞춤	강사 전문성	비슷한 내용 반복	교육이 지루함	남성 잠재적 가해자 취급
남성	20대	69.7	66.1	71.0	79.3	64.7	63.9
	30대	74.8	81.9	81.1	77.0	62.9	63.5
	40대	75.6	81.1	84.0	70.5	52.7	55.5
	50대+	90.5	87.9	95.0	77.9	41.7	57.9
여성	20대	81.3	80.4	84.2	72.5	46.2	18.0
	30대	84.1	84.9	89.9	79.8	56.9	32.2
	40대	82.9	90.2	89.2	77.9	48.7	29.9
	50대+	90.0	90.6	89.4	74.0	44.4	37.0

주: '그런 편이다'와 '매우 그렇다'에 대한 응답을 합한 것임.

▶ 예방교육에 대한 평가

- 폭력예방교육에 대한 평가는 성별과 연령별로 차이가 있는데, 성별 격차가 40대와 50대보다 20대와 30대 연령층에서 더 크게 나타남. 교육에 대한 평가에 있어 20대 연령층에서 성별 격차가 크게 나타났음. 이러한 성별과 연령별 차이를 교육내용과 방식에 어떻게 반영할 것인지 논의가 필요함.

<표 2> 성희롱·성폭력 예방교육 수강 이후 알게 된 변화

(단위: %)

구분		업무·학업 저해 행위	성차별·성별 고정관념과 관련	기관 고충처리 방법 더 잘 인지	피해자 고충 더 잘 이해	가해자 처벌 필요 더 공감
남성	20대	80.7	72.0	74.7	82.6	86.0
	30대	88.9	83.7	86.3	88.0	90.7
	40대	88.1	86.5	87.6	88.5	89.7
	50대+	96.0	94.7	91.5	94.2	95.0
여성	20대	91.8	90.9	87.1	91.1	93.4
	30대	96.3	95.1	86.3	93.6	94.9
	40대	96.5	98.1	88.8	97.2	98.4
	50대+	97.5	96.4	90.4	97.5	97.9

주: '그런 편이다'와 '매우 그렇다'에 대한 응답을 합한 것임.

▶ 성희롱·성폭력 예방교육 수강 후 알게 된 변화

- 전반적으로 폭력예방교육 수강 이후 젠더폭력에 대한 이해도가 남성보다 여성 집단에서 더 높게 나타남(<표2 참조>).
- 교육효과는 여성이 남성보다 높고, 각 남녀 집단에서 연령이 증가하면 교육효과가 높아짐.
- 성희롱·성폭력이 업무나 학업 수행을 저해하는 행위라는 문항에 대해 남녀 모두 연령이 증가할수록 동의 비율이 증가함. 특히, 남성 50대 이상의 동의 비율이 여성 20대보다 높음.
- 교육효과는 50대 이상 여성에서 가장 높고 20대 남성이 가장 낮음. 교육 효과성에서 여성보다 남성 집단 내 연령별 차이가 더 큰데, 이는 남성이 단일한 집단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음.

<표 3> 예방교육 수강 이후 의견

(단위: %)

구분		상대 존중이 중요함을 배움	피해자 도와야 한다고 생각	예방 방법 더 알고 싶음	예방교육 필요성에 공감	예방교육 만족도
남성	20대	82.7	82.5	76.1	85.6	72.9
	30대	87.8	89.9	79.4	92.4	79.8
	40대	93.2	91.9	81.4	93.2	85.2
	50대+	98.2	97.4	89.1	98.0	93.9
여성	20대	95.3	94.6	90.4	97.2	87.7
	30대	95.9	96.2	90.5	96.2	86.1
	40대	98.5	97.0	90.9	99.4	94.1
	50대+	99.5	97.7	90.2	99.3	94.6

주: '그런 편이다'와 '매우 그렇다'에 대한 응답을 합한 것임.

▶ 예방교육 수강 이후 의견

- 예방교육 필요성에 공감하는 비율은 전반적으로 남성보다 여성 집단에서 더 높는데, 50대 남성의 경우 해당 비율은 20대와 30대 여성의 경우보다 조금 더 높음(<표 3> 참조).
- 상대 존중이 중요하다는 것을 배운 것과 피해자를 도와야 한다는 것에 동의하는 비율은 남성 50대의 경우 각각 98.2%, 97.4%로 여성 20대와 30대보다 높게 나타남.
- 각 성별 집단에서 연령이 높을수록 교육효과, 교육 필요성에 대한 공감, 교육 만족도가 증가하는데, 남성 집단에서는 예방교육 수강 이후의 의견에서 연령별 차이가 여성의 경우보다 더 크게 나타남.

<표 4> 직급별 예방교육 수강 이후 변화

(단위: %)

조사 항목	고위관리자	중간관리자	일반직원
수강후 피해자 고통을 더 잘 이해하게 되었다	84.5	92.7	92.4
수강후 가해자 처벌 필요성에 더 공감하게 되었다	89.6	92.6	94.3
폭력예방교육 필요성에 공감하는 편이다	90.9	96.0	95.9
대화나 행동 시 상대 존중이 중요하다는 것을 배우게 되었다	88.0	95.3	94.5
16세미만 청소년이 동의해도 성인이 이들과 성관계하는 것은 범죄다	86.7	95.4	94.6
노출 심한 옷 입은 여성의 성폭력 피해는 여성에게도 잘못이 있다	47.2	31.7	20.2
피해자를 알게 되면 도와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다	86.0	92.4	95.1
기관 내 성희롱·성폭력 고충처리기구 존재 인지한다	85.1	91.8	86.2

주: '그런 편이다'와 '매우 그렇다'에 대한 응답을 합한 것임.

▶ 고위관리자의 교육효과 제고

- 고위관리자는 중간관리자나 일반직원에 비해 성희롱·성폭력이나 관련 사건 대처에 대한 인식 수준이 낮음(<표 4> 참조).
- 예방교육을 통해 피해자 고통을 더 잘 이해하게 되었다는 고위관리자와 일반직원 비율이 각각 84.5%, 92.4%, 가해자 처벌 필요성에 더 공감한다는 각각 89.6%, 94.3%, 예방교육 필요성에 대한 공감은 90.9%, 95.9%로 고위관리자 인식 수준이 일반직원의 경우보다 낮음.
- 성희롱·성폭력 고충처리기구에 대한 고위관리자의 인지 비율은 85.1%로 가장 낮음.

<표 5> 성희롱 예방에 대한 각 직급의 노력

(단위: %)

구분		고위관리자	중간관리자	일반직원
남성	20대	65.0	76.1	88.6
	30대	75.6	82.6	90.0
	40대	78.6	80.2	89.0
	50대+	88.4	91.6	91.6
여성	20대	70.8	73.9	87.6
	30대	71.4	70.6	82.0
	40대	80.1	86.8	91.9
	50대+	92.8	95.3	95.7

주: 각 직급 구성원이 '노력하는 편이다'와 '매우 노력한다'에 대한 연령별 응답을 합한 것임.

▶ 고위관리자의 성희롱 예방노력 강화

- 성희롱 예방을 위한 구성원 노력에 동의하는 비율은 성별·연령별 차이를 보이는데, 고위관리자와 중간관리자 노력에 동의하는 비율은 여성 30대 비율이 가장 낮아 각각 71.4%, 70.6%이고, 남성 중에서는 20대가 가장 낮아 각각 65.0%, 76.1%임(<표 5> 참조).
- 공공기관 구성원의 성희롱 예방노력은 고위관리자보다 중간관리자와 일반직원 집단에서 높은 것으로 조직내에서 평가되고 있음.

<표 6> 성희롱·성폭력 피해 관련 기관 대응 조치에 대한 직급별 신뢰도

(단위: %)

조사 항목	고위관리자	중간관리자	일반직원
기관에서 나의 신상 보호를 철저히 해줄 것이다	88.5	79.7	66.9
기관에서 나의 고충에 공감하고 문제해결에 최선을 다할 것이다	86.3	84.9	72.3
기관에서 가해자가 합당한 처벌을 받도록 조치할 것이다	91.4	85.5	73.1

- 주: 1. 신상보호 철저히: 내가 성희롱·성폭력 당하면 신상보호를 철저히 해줄 것이다
 2. 고충에 공감하고 문제해결에 최선: 내가 성희롱·성폭력 당하면 고충에 공감하고 문제해결에 최선을 다할 것이다
 3. 가해자에게 합당한 처벌: 내가 성희롱·성폭력 당하면 가해자가 합당한 처벌을 받도록 조치할 것이다
 4. '그런 편이다'와 '매우 그렇다'에 대한 응답을 합한 것임.

▶ 고충처리 역량에 대한 신뢰도 제고

- 성희롱·성폭력 피해 발생 시 기관 문제해결 역량에 대한 신뢰도는 고위관리직에서 가장 높고, 일반직원 집단에서 가장 낮음(<표 6> 참조).

<표 7> 성희롱·성폭력 발생 시 기관 조치에 대한 연령별 신뢰도

(단위: %)

구분		신상보호 철저히	고충에 공감/문제해결 최선	가해자 합당한 처벌
남성	20대	63.0	64.8	70.2
	30대	69.0	72.3	75.4
	40대	72.1	77.1	78.5
	50대+	81.7	83.7	87.8
여성	20대	53.9	67.4	58.7
	30대	54.6	61.3	63.2
	40대	75.6	80.0	81.8
	50대+	85.1	91.5	87.3

주: '그런 편이다'와 '매우 그렇다'에 대한 응답을 합한 것임.

▶ 연령별 성희롱·성폭력 발생 시 기관 조치에 대한 신뢰도

- 성희롱·성폭력 발생 시 사건 발생 시 기관 조치에 대한 성별·연령별 신뢰 정도는 50대 이상 여성 집단에서 가장 높고, 그 다음 50대 남성, 40대 여성, 40대 남성 순으로 나타났음(<표 7> 참조).
- 20대와 30대 여성은 신상보호, 문제해결 최선, 가해자 처벌에 대해 신뢰하는 비율이 낮음. 20대·30대 남성 집단에서 이와 관련된 신뢰 정도가 40대·50대 남성보다 낮음.
- 남녀 모두 20대·30대보다 40대·50대 이상 집단에서 관련 신뢰 정도가 높게 나타남.



폭력예방교육 강사 및 전문가 의견

- ▶ 여성은 교육에 집중하는 모습을 보이는데, 일부 남성은 교육내용에 방어적 태도를 보인다고 응답함. 일부 남성 수강생들은 폭력예방교육이 여성 편향적이고 역차별적이라고 이야기하면서 강사에게 적대적 태도를 보이기도 함.
- ▶ 강사들은 폭력예방교육에 대한 남성 이해도를 높이고자 성차별적 문화구조와 권력의 문제를 교육내용에서 다룬다고 함. 이외 긍정 강화, 공감시키기, 객관적 데이터를 통한 논거 제시, 지배적 남성성에 대한 문제 제기, 대안적 남성성 제시 등의 방법을 사용한다고 언급함.
- ▶ 강사들은 성폭력 근절과 교육 효과성 제고를 위해서 공동체 구성원의 의무를 강조할 필요가 있다고 봄. 이외 폭력예방교육 평가, 소집단 대면 교육 활성화, 성별 고정관념과 성차별 의식을 성찰할 수 있도록 하는 교육내용, 참여식 교육, 집단별 특성을 고려한 교육내용 제공의 필요성을 언급함.

3. 정책제언



폭력예방교육의 정책 과제

▶ 정책성과

- 우리나라에서는 공공기관의 폭력예방교육 실시를 법적 의무로 규정하는데, 외국과 비교해 폭력예방교육의 주제와 대상 범위가 넓음.
- 여성가족부는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과 협력하여 폭력예방교육컨텐츠를 개발하여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일반인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이러한 정부의 적극적 정책은 한국사회의 젠더폭력 감수성 제고에 기여하였음.

▶ 정책적으로 개선해야 할 과제

- 공공기관의 역량 기획 부족

: 여성가족부는 폭력예방교육 실적 점검을 통해 각 공공기관의 관련 지표의 이행정도를 확인하고 있는데, 이는 각 기관이 폭력예방교육의 중요성을 인지하고 요구되는 지표를 충실히 이행하도록 독려하는 수단임.

: 본 연구에 따르면 예방교육을 통해 젠더폭력에 대한 이해도와 공감 수준이 높았으나, 폭력예방교육이 형식적이며 수강자들이 수동적으로 교육에 참여하는 문제가 확인됨.

: 각 공공기관은 인적·물적 자원 투입을 증가시켜 수강자의 공감과 참여를 높이는 교육을 제공해야 함.

: 각 공공기관 담당자는 공공기관 종사자 다수가 장기 근속자임을 염두에 두어 기관 구성원 특성에 맞는 교육을 중장기적으로 기획해야 함.

▶ 학습자 특성과 차이를 반영한 교육 내용이 부족함

- 섹슈얼리티, 성폭력, 폭력예방교육에 대한 성별·연령별 인식 차이가 존재하는데, 공공기관 담당자는 이러한 차이를 반영한 교육 콘텐츠를 확보하여 교육참여자에게 제공되도록 해야 함.



효과성 제고를 위한 정책 방향

▶ 공공기관 역량 제고

- 장기근속자를 고려한 중장기적 교육 기획 및 담당 부서의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과 컨설팅이 필요함.
- 기관상황, 구성원의 특성과 요구를 반영한 교육 기획을 통해 교육 불만족 사유를 개선하는 것이 필요함.
- 정부는 이와 관련된 서비스를 제공하고 실적 점검에 관련 지표를 반영하는 것이 필요함.

▶ 기관 역량 제고를 위한 정책적 지원

- 공공기관의 소집단 대면 교육 혹은 토론 활성화에 대한 정책적 지원이 필요함.
- 한국양성평등교육원은 교육방식과 교육내용과 관련한 컨설팅을 공공기관에 제공할 필요가 있음.
- 해당 측면을 실적 점검 지표에 추가하여 공공기관 참여를 유도하고 우수기관이나 이들 기관 교육담당자 표창 등의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것이 필요함.



데이터에 기반한 콘텐츠 개발

- 본 실태조사에서 폭력예방교육 관련 수강자의 성별·연령층별 차이가 큰 것으로 확인됨. 이런 차이를 바탕으로 섹슈얼리티, 젠더폭력, 예방교육에 대한 공공기관 종사자의 성별·연령층별 차이를 반영한 교육 콘텐츠의 구성이 필요함.
- 여성보다 남성집단 내에서 연령별 예방교육 관련 인식 차이가 크게 나타남. 교육평가에서 50대보다 20대 연령층에서의 성별 격차가 큰데, 이러한 차이를 규명하는 연구가 추후 필요함.
- 섹슈얼리티, 젠더폭력, 예방교육에 대한 공공기관 종사자의 성별·연령층별 차이를 반영한 교육콘텐츠가 필요함.



관리자 역량 강화

▶ 고위관리자의 교육 효과 제고

- 고위관리자의 성희롱·성폭력 인식, 사건 대처에 대한 인식, 예방노력에 대한 지식이 중간관리자나 일반직원에 비해 현저히 부족함.
- 고위관리자를 대상으로 한 맞춤형 예방교육이 필요함.

▶ 고위관리자의 성희롱 예방노력 강화

- 성희롱 예방노력을 보면 직급이 높을수록 그 정도가 낮은 것으로 인식됨.
- 여성 20대와 30대, 남성 20대는 고위관리자의 성희롱 예방 노력에 비판적이지만, 50대 이상 여성과 남성 집단에서 이들의 노력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비율이 높음.



폭력예방에 있어 남성 역할 제고

▶ 주변인 프로그램 확산

- 주변인 프로그램은 폭력예방에 대한 남성의 방어적 태도를 개선하는 데 도움이 되는 것으로 나타남.
- 주변인에게 역할을 부여하고 롤모델을 제시하여 젠더폭력에 개입하여 상황을 개선할 수 있는 기술을 가르치는 것이 필요함.
- 젠더폭력에 수용적인 조직문화를 변화시켜 폭력이 발생하지 않도록 환경을 만드는 것이 필요하고, 남성에게 주변인으로서의 적극적 역할을 부여하는 것이 필요함. 남녀 모두 공동체 구성원으로서 폭력을 예방하기 위해 노력하도록 하는 것이 필요함.

▶ 남성 수강생의 공감도 제고 방안

- 여성문제로 인식되는 젠더폭력 이슈를 남성의 문제로 인식시키는 것이 필요함.
- 교육에서 성희롱을 직장 괴롭힘과 연계시켜 남성 공감도를 제고시키는 것이 필요함.



남성 강사의 효과성 탐색

- ▶ 외국에서 남성대상 폭력예방교육에 있어 남성 강사의 효과성이 확인됨에 따라 우리나라에서도 남성 강사의 효과성에 대한 탐색이 필요함.
- ▶ 공공기관내 폭력예방교육 남성 담당자 중 자질이 있는 사람을 대상으로 소속기관 강사로 훈련시킨 후 이들을 강사로 투입하여 수강생의 교육 효과성을 모니터링하는 것이 필요함.



교육 효과성 측정 도구 개발

- ▶ 공공기관내 교육참여자를 대상으로 교육 효과성과 적절성 등을 파악하는 정기적 조사가 필요함.
- ▶ 교육 전후의 변화를 측정하고 교육 콘텐츠를 평가하는 등 해당 교육의 효과성을 구체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측정 도구 개발이 이루어져야함.

주관부처: 여성가족부 권익기반과